윤리와 철학

한국산업기술대 지식융합학부 2018-1학기

과거와 현재의 대비 - Last Dance

▶ 왜 Last Dance인가?

› 과거: 영원, 사랑, 행복, 아름다움, 춤과 노래, 황홀경, 함께 함

현재: 시간(과거와 미래), 눈물, 불안, 서툶, 설렘, 고독

자의식, 자기의식 - Last Dance

- › '어른이 된 나', '아직은 어린 나', '너무 멀리 와버린 나', '혼자가 된 나' ...
- 고독, 외로움: '나', '자기'에 대한 의식 없으면 고독 도 없다.
- 나와 타자, 나와 세계의 구별, 분리

정체성 - Last Dance

- 내 것, 나에게 속한 것, 나의 소유(所有; property)에대한 의식
- ▶ 나에게 고유한(proper) 것/ 내 것이 아닌(alien; strange) 것
- ▶ "아무것도 없이 그저 행복하던 때"
- ▶ 나의 정체, 정체성(identity)/본성(nature)

정체성 위기 - Last Dance

▶ 정체성 위기, 정체감의 위기를 겪는 젊은이의 노래

정체성 위기의 역설: 정체감의 위기는 비로소 '나 에 대한 의식'을 가지면서 찾아온다.

정체감 위기의 정상성

자신의 고유한(proper) 정체성을 얻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

사회와 타인들로부터의 거리 확보

▶ 사회가 부과하는 가치들과의 대면, 대결, 숙고 → 독립, 자립 ▶ '모범생', '마마보이': 무조건적인 수용

▶ '비행청소년': 무조건적인 거부

- ▶ 중2병 (여: 초6병)
- ▶ 초등학생 고민 1위: 이성친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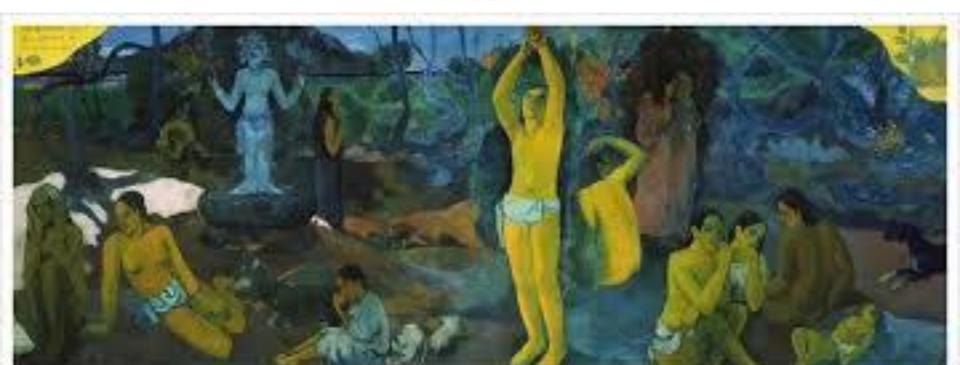
정체성 찾기의 유예기간

- 대학시절: 연장된 청소년기
- 청소년~대학시절: 정체성 찾기의 유예기간
- 길어지는 유예기간
- 인생전체가 유예기간?
- '사십춘기': 고갱의 예





(0010)SLEEPING 1000



철학과 Last Dance: 공통점

- ▶ 익숙한 것과의 결별 및 새로운/낯선 것과의 대면
- ▶ 속성/소유, 정체성, 본성에 대한 물음
- 철학: 사춘기적 활동

철학과 Last Dance: 차이

- ▶ 특정 기간 (사춘기~대학생활) → 인생전체
- ▶ 개인의 삶 → 사회 전체, 인류 전체, 역사 전체

루카치, 『소설의 이론』(1915)

 "하늘의 빛나는 별들을 보면서 갈 수 있고 또 가야 만 하는 길의 지도를 읽을 수 있었던 시대는 얼마나 행복했던가? 그리고 별빛이 그 길을 환히 밝혀주던 시대는 얼마나 행복했던가?"

▶ 고대 (호메로스의 서사시): 역사의 유년기

- ▶ 한 인간의 일생 → 인류 역사
- 신화시대, 전통시대, 전근대시대(유년기) → 근대 (사춘기)
- ▶ 근대의 영혼: 방황과 물음

소크라테스

▶ 인류역사의 유년기에 등장한 중2병자

▶ '너 자신을 알라'

가인의 정체성 (미덕) → 국가 전체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질서(정의, 절제, 경건, 용기, 지혜)에 대해물음



소크라테스

- ▶ 아테네라는 말의 잔등에 붙은 등에
- ▶ 전기가오리



소크라테스

- ▶ 소크라테스의 어머니: 산파
- 철학: 앎의 산파술
- ▶ 대화와 반박
- 묻기만 하고 답을 주지 않는다
- 무지의 지: "철학입문"





원시부족의 성인식

▶ 육체적 감각의 극복(고통의 인내) → 성인

"약속할 줄 아는 동물" (니체): 자신에게 할당된 일,역할, 정체성에 투신할 줄 아는 인간

원시부족의 성인식

- 부족공동체의 규범를 안으로 진입
- ▶ 반성적 거리X
- ▶ 사춘기X 정체성 찾기의 유예기간X
- '마마보이', '모범생'

철학

독자적 개인, 반성하는 개인, 자신의 고유한 정체 성을 얻으려 하는 개인

"약속할 줄 아는 동물": 자신이 선택한 일, 역할, 정체성에 지속적으로 전념할 수 있는 능력

낯설게 하기

- ▶ 철학: 의식적으로 낯설게 하는 적극적 활동 (↔ 낯 설어진 상태)
- ▶ 낯설게 하기(소격효과) (브레히트) ↔ 동일시, 감정 이입
- 홍상수 영화: 일상적이고 지질한 모습, 특별한 주목의 대상이 되지 않았고 굳이 주목하고 싶지 않았 던 모습의 객관화

친숙함과 인식

"친숙한 것(bekannt; familiar)은 그것이 친숙하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아직 인식되지는(erkannt; known) 않은 것이다" (헤겔, 『정신현상학』, 서론)